

服色의 象徵的 意味에 관한 研究

—陰陽五行思想을 基礎로—

상지대학교 병설전문대학 의상과

부교수 강윤숙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이순홍

目 次

I. 序論	V. 五行說에 의한 十干·十二支의 象徵과 色
II. 服飾의 色彩象徵	VI. 五行色의 新福的 展開
III. 陰陽五行思想	1. 新福說의 意義 2. 新福說에 의한 服色의 應用
1. 陰陽論 2. 五行說	VII. 結論
IV. 服飾에 나타난 正·間色의 象徵的 意味 1. 五行의 正·間色	參考文獻 ABSTRACT

I. 序論

1. 研究의 目的

복식에서의 색은 단지 색채 감각만이 아니라 그 내용이나 상징성이 중요시 된다. 또한 색은 복식 제도의 중요한 요소였다.

복식의 색채상징은 그 민족, 사회에서 관념화된 일반성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며 문화적 특성을 나타내는 독특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음양오행사상이라는 사고체계는 의복, 민속, 생활양식에 그 의미를 부여하였고, 정신세계 및 일상생활속에서 의례나 제도와 관련하여 색채가 상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였다.

본 논문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복식이 그 색채와 더불어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되었으며 또한 이에 어떠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미적 표

현욕구와 新福的 생활감정을 충족하여 왔는가를 음양오행사상에 근거하여 오행적 색채관을 밝히는데 그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研究의 内容

의복에 나타난 색채상징을 구조적 연관성을 가지고 연구함으로서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정리하고 복식에 나타난 색들의 의미를 음양오행사상에 따라 알아 보고자 한다.

3. 研究의 方法 및 制限點

본 논문은 복색이 음양오행사상을 기초로 복식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그 주된 연구자료는 문헌, 복색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사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服飾

史的 諸研究方法論을 援用하고자 한다.

新福사상의 服色은 간접적인 문헌에 의존하여 연구하였으므로 복색 구조를 파악하는 일은 간접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복식생활 속에 내재된 新福의 인 자기보호 측면은 복색의 상징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시도해 본 것이다.

기복사상의 복색은 음양오행사상과 복식생활을 이해하는데 그 의미를 갖는다. 자료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제한된 자료에 의하여 분석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분석결과도 제한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II. 服飾의 色彩象徵

복식은 제2의 피부라고 할 만큼 인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생활의 일부가 되어 개인의 服飾行動은 단순히 습관적으로 입거나 또는 특별한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입는다 하더라도, 언어에서와 마찬가지로 복식은 인간의 심리와 내적인 표현 곧 자신의 사상, 감정을 표현하게 된다.

복식은 언제부터인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생긴 인위적인 기호인 동시에 상징이며, 모든 복식들은 관습에 의해서 상황과 더불어 그 의미를 전달하게 되므로 복식에서의 색은 단지 색채 감각만이 아니라 그 내용이나 상징성이 중요시된다.

한국의 전통색채관을 형성한 것 중 하나가 음양오행설이다. 음양오행설은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사상으로서 한국에 들어올 때에는 한민족의 민족성에 적합한 형태로 수용되었다. 즉 한민족 고유의 색채와 샤머니즘적인 색의 요소가 오행설과 연결되어 독자적 색채관이 탄생한 것이다. 소위 오행이라 불리우는 사상체계는 색채의식에 강한 영향을 주어서 색채를 五彩로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다.

우리 민족의 의식구조의 골격은 음양오행적인 우주관이며 오채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개념이나 존재와 연결시켜, 의미를 부여하여 왔다. 이런 색채의 상징 결합 체계는 철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색채 자체가 철학사상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치에 따라 색채를 생활에 활용하였고 오채는 자연스럽게 관습화되어 규범과 제도를 규정하는 바탕이 되었으므로 의례에서 우주생성의 기본적인 五原色 혹은 五方色을 사용하였다.

동양의 色彩感情은 觀念的이고 복잡한 哲理가 있어 衣服美는 음양오행에 順應한 재단법과 正色으로 나타난 관념적인 색채를 쓰으로써 의복의 미를 상징했다. 즉 의복에 음양오행사상을 적용시켜 内面的인 관념이 보이게 되는 것이다. 복식의 색채는 기호보다는 음양오행학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고, 색의 조화와 배색도 오행의 상생과 상극 속에서 아름다움을 구하려고 노력했다. 복식에 보이는 색채의 시각적 효과는 오히려 복식의 형태보다 강렬하므로 색채는 신분계급의 구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색에 대한 다양한 제도는 먼저 신분계급의 상징, 五行思想尊重, 사치금지 등의 근거와 목적을 가지고 성립되었음이 인지된다. 그리하여 색은 보이는대로 지각되는 색이 아니라 음양오행사상 등에 근거한 五方色의 개념 안에서 이해된다.

복색의 상징은 오행설에 따라 의미를 부여하여 인격과 규범 등에 중요시 하였다. 또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 본능을 나쁜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벽사의 색이다.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을 승배의 대상으로 하여 자신들의 생활속에 끌여들여 나쁜 것을 물리치고 행복을 기원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힘의 상징색으로 적색과 청색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복식, 장신구, 문양 등에 따라 적합하게 배치하였다.

색채는 권위나 권력에 의한 하나의 상징적 의미와 사상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시대적 윤리관과 생활철학 등 인간의 의지가 담겨져 있음을 볼 때에 의복에 있어서도 같은 옷감이라도 색과 무늬로서 계급을 알 수 있었다. 복식의 색채상징은 그 민족, 사회에서 관념화된 일반성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며 문화적 특성을 나타내는 독특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음양오행사상이라는 사고

체계는 의복, 민속, 생활, 양식 등에 의미를 부여하여 정신과 생활 속에 의례나 제도에 관련하여 색채 상징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였다.

III. 隅陽五行思想

I. 階陽論

1) 階陽의 意味

음양의 본래 의미는 (태양의 빛남)과 (태양이 구름에 가리워짐) 이외의 것일 수 없다. 陽은 (山側의 햇빛이 비치는 곳), 陰은 (햇빛이 비치는 반대편 산的那一의 그늘진 곳)이라는 의미로 정착된 것이다.

'陰陽' 두 글자의 의미를 『說文解字』阜部에서 찾아보면 “陰은 어둡다는 의미”고 陽은 높고 밝다는 의미이다. “라고 되어 있다.

‘(金)음’에 들어있는 ‘云’자는 옛날의 ‘雲’자이다. 따라서 '(金)음'의 본의는 구름에 해를 가리는 것 아咩, 그것이 확대되어 일반적으로 가린다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해를 등지고 있는 곳은 어둡기 마련이며, 해를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의미가 다시 확대되어 뒤쪽이나 이면 혹은 북쪽이라는 뜻이 되었다. 이것이 ‘陰’자의 의미가 변화해온 과정이다.

‘(火)양’은 ‘日’자와 ‘一’자를 합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해가 땅 위에 있는 모습이므로 일출의 의미를 지닌다. 또 ‘勿’자를 합한다고 하였는데 『설문해자』에서는 “勿은 마을에서 내거는 깃발의 모습”이라고 하였다. 해가 땅위로 떠올라 깃발을 내걸면 그 깃발이 매우 힘차게 날리는 모습, 이것이 이 글자의 본래 의미이다. 그 의미가 확대되어 해의 광채를 나타내게 되었다. 또 해가 뜨면 따뜻해지기 때문에 다시 그 의미가 확대되어 따듯한 기운을 陽氣라고 하게 되었다. 또한 해를 향하면 밝은 빛을 볼 수 있으므로 그 의미가 다시 앞쪽이나 표면 혹은 남쪽이라는 뜻으로 확대되었다. 이것이 ‘陽’자의 의미가 변화해온 과정이다.

陽은 ‘햇빛’을 陰은 ‘그늘’을 뜻하는 것인데, 점차 철학적 개념으로 쓰여져 우주의 두 원리로 즉 陽은 만물을 생산하는 原理요, 陰은 만물을 완성시키는 원리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은 男女에 의하여 만물이 생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陰陽에 의하여 만물이 생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양’의 관념은 최초로 『주역』의 ䷂ 泰法에서 생긴 것이다. 즉 ‘-’은 陽을 표시하고 ‘--’은 陰을 표시하였다. 이것은 원시사상에 속하는 것이다. 정식으로 문자에 나타난 것은 乾의 象詞 중의 “물에 잠긴 용은 쓰지 말라 양기가 숨겨 감추어져 있다.” (潛龍勿用, 陽氣潛藏)는 말이다. 坤의 象詞 역시 “서리를 밟으면 얼음을 굳힌다. 음이 비로소 용결된다.” (履霜堅冰, 陰始凝也)는 말이다. 모두 陽으로서 乾을 가리키고 陰으로서 坤을 가리킨다.

음양개념에 뿌렸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左傳』『昭公 元年』의 〈六氣〉에 대한 기사이다.

「晉侯求醫於秦。秦伯使醫和視之…天有六氣，降生五味…淫生六病。六氣曰陰陽風雨晦明也。分爲四時，序爲五節過則爲災。陰淫寒病，陽淫熱病，風淫末病…」(진후가 진나라에 의사를 구하니 진백이 의화로 하여금 가보게 하였다… 하늘에는 6기가 있어 오미를 내려보내나니… 음한 것은 여섯 가지 병을 낳는다. 6기는 〈음양풍우희명〉인데 나뉘어 사시가 되고 질서 지워져 오질이 되고 지나치면 재앙이 된다. 음이 과하면 한질이 되고 양이 과하면 열질이 되고 풍이 과하면 말질이 되고….)

여기에서 陰陽은 六氣 가운데의 2가지로서 만물 구성의 二元的 原質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氣〉로서 규정된 이상, 寒暖이라고 하는 기후적 의미를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자연현상을 표상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구절은 원시 음양 개념에서부터 원질적 음양 개념으로 전개되어 가는 과도기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陰陽개념의 획기적 변화는 전국시대에 와서 이루어진다.

「列星隨旋，日月遞炤，四時代御，陰陽大化，風雨博施，萬物各得其以生，各得其養而成」(列星이 따라서 들고 일월이 서로 비추며 四時가 交代하면서 다스리고 음양이 크게 변하며 風雨가 널리 베풀다. 만물이 각각 그 和를 얻어서 태어나고 각각 그 養을 얻어서 성장한다.) (天論)

이상 음양개념의 변용 과정을 요약하면 기후의 맑음과 흐림, 양지와 음지, 따뜻함과 추위 등 자연 현상을 나타내던 본래 의미에서부터, 춘추시대에 〈六氣〉의 한 요소로 발전되었다가 춘추말기에 〈육기〉 가운데에서 둘러되어 〈육기〉를 대표하게 된다. 전국시대에 들어와 음양은 만물구성이 二元氣라는 원질적 개념으로 변용되며 전국말기에 이르러 질료적 성격이 털각되면서 볍주화되는 것이다. 물론 음양개념이 정확하게 〈원시적 음양개념→원질적 음양개념→복주적 음양개념〉이라고 하는 순서를 밟아 전개되는 것이 아니다. 같은 문헌에도 여러 유형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으나 그 전개방향은 일단 이같이 정리될 수 있다고 본다.

2) 周易에 나타난 陰陽과 對待性 原理

『周易』은 처음에 운세를 판단하는 말(筮辭)을 모은 것 뿐이었으나 후에 와서 이론이 전개되어 차츰 철학서로서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易〉이란 글자는 도마뱀을 옆에서 본 상형문자로서 상부의 〈日〉자는 머리부분이고 하부의 〈勿〉자는 발과 꼬리를 나타내고 있다. 어떤 종류의 도마뱀은 몸의 빛깔을 하루에도 十二번씩이나 변한다는데서 〈易〉이라는 글자는 〈변화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易〉의 사상적인 핵심은 양과 음(剛과 柔)(乾과 坤)의 대립이라고 하는 陰陽二氣論이다. 반드시 대립되는 것이 있어서 그와 대립함으로써 통일된 세계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모든 변화는 음양의 대립에서 생긴다. 대립이 없는 곳에는 변화가 없다.

『주역』은 음양이라는 對待 개념의 상호관계로 만물의 생성 변화를 설명하는 일종의 변증법이다.

대립하면서 서로 끌어당기는 관계, 즉 상호대립하면서 상호 의존하는 관계로 상대가 존재해야 뼈로 소 자기가 존재하는 관계가 바로 對待라고 한다.

〈對待〉관념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이 〈陰陽〉이며, 이 음양 대대적 구조를 거울로 하여 성립된 것이 『周易』의 사상체계이다. 따라서 〈대대〉관념은 『주역』에서 원초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설명 될 수 있다. 대대개념의 대표가 곧 陰陽이다.

2. 五行說

1) 五行觀念의 源源과 陰陽說과의 結合

五行이라는 글자가 가장 먼저 경전에 나타나는 것은 『尚書』『甘鑑』이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가록이 있다.

有扈氏는 ‘오행’을 업신여기고 三正을 태반하였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억단할 수 없다. 후세의 주석가들은 대부분 오행을 金·木·水·火·土, 삼정을 建子·建丑·建寅으로 파악하였다.

그 다음은 『홍범』이다. 한나라 때 『洪範五行傳』이 저술된 이후 오행을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홍범』을 연상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이 들은 거의 펼래야 펼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그 원문을 보면 내가 들으니 옛날에 곤이 둑을 막아서 홍수를 다스리려고 하여 오행을 어지럽혔다고 한다. (洪範九疇 중에서) 첫번째 것을 오행이라고 한다.

『書傳』「五行，一曰水，二曰火，三曰木，四曰金，五曰土，水曰潤下，火曰炎上，木曰曲直，金曰從革，土爰稼穡，潤下作鹹，炎上作苦，曲直作酸，從革作辛，稼穡作甘.」(첫째는 水요, 둘째는 火요, 셋째는 木이요, 넷째는 金이요, 다섯째는 土이다. 水는 潤하고 下하며 火는 炎하며 上하고 木은 曲하며 直하고 金은 從하며 革하고 土는 稼하며 穩이니라. 潤下는 짠맛을 만들고 炎上은 쓴맛을 만들고 曲直은 신맛을 만들고 從革은 매운맛을 만들고 稼穡은 단맛을 만드느니라.)

五行에 관하여는 『舊唐書』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세상의 만물은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차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다섯가지 사물들이 있으니 그 첫째는 水요, 둘째는 火요, 셋째는 木이요, 넷째는 金이요, 다섯째는 土이다.

『呂氏春秋』에서는 五行을 五氣라 하였다. 五氣란 다섯가지 성질의 氣이며, 이들 氣는 늘 운동하고 유행하므로 오행이라 하였다. 오행의 본질은 모두 氣이며, 음양 역시 氣이다.

하늘에는 오행이 있으니 木·火·土·金·水가 그것이다. 木은 火를 낳고, 火는 土를 낳고, 土는 金을 낳고, 金은 水를 낳는다. 木은 봄이 되고, 火는 여름이 되고, 土는 늦여름이 되고, 金은 가을이 되고, 水는 겨울이 된다. 봄은 탄생을 주관하고, 여름은 성장을 주관하고, 늦여름은 양육을 주관하고, 가을은 수화를 주관하고, 겨울은 저장을 주관한다. 저장은 겨울에 이루어진다.

우주의 개념을 다섯의 기본색으로 연결시켰다. 즉, 青, 赤, 黃, 白, 黑을 五色 또는 五彩라 불렀다. 오행이란 말은 전국시대부터 존재하였으며 다섯 가지 요소가 만물을 생성하는 원소이기 때문에 음양오행가는 전통적인 오행관념을 기초로 하여 그들이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을 해석하였다. 전국 말기에 살았던 추연은 방대한 자연관 체계를 가지고 오행을 논하였다. 추연은 천지가 아직 생성되지 않았을 때에는 단지 혼돈한 '氣'만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여 천지는 '기'로부터 분화되고 생겨나고, 그것이 이른바 "천지가 갈라지는 것"이다. "오덕이 천이함에 따라 통치에는 각각 올바른 제도가 있으며 그 부응하는 것도 그와 같다"는 것은 추연이 인식한 역사 발전의 법칙이다. 오행설은 과학적 성분도 있고 종교적 성분도 있지만 자연현상의 변화하는 복잡한 과정을 설명하여 음양과 오행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물질적인 것이었다. 음양오행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물질현상의 상호 연관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음양과 오행관념이 결합할 수 있는 공통기반이 된다. 오행사상의 기저에는 상이한 사물들간의 상호관계에 의한 조화관념이 깔려 있다. 이같은 관념이 음양과 오행설로 결합될 수 있다.

2) 五行相勝·相生說

五行相勝說(五行相剋說)은 木은 土를 勝하며, 土는 水를 勝하며, 水는 火를 勝하며, 火는 金을 勝하며, 金은 木을 勝한다는 것이다.

추연은 오행상승에 근거하여 오행의 순서를 배열하였다. 五德의 운행에서 어떤 德이 주요한 힘으로 등장하면 그것을 이어 등장하는 것은 반드시 그 德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德이어야만 한다. 따라서 오행의 순서는 추연의 오행상승설에 따르면 土·木·金·火·水가 되고, 오행상생설에 따르면 木·火·土·金·水가 된다. 이 두 가지 상이한 순서를 통해서 역사를 해석하면 당연히 각 왕조가 얻은 덕도 달라지게 된다. 중국에서는 각 왕조가 바뀔 때마다 五行의 德目을 각 왕조에 배당하였던 바, 그 德에 해당되는 五行色에 맞추어서 복색을 改正하여 그 왕조의 表象으로 삼았다.

五行相生說은 木은 火를 生하고 火는 土를 生하고 土는 金을 生하고 金은 水를 生하고 水는 木을 生한다.

五行家는 또 四時의 변화를 五行相生에 해당시킨다. 木生火란 木은 불타므로, 火를 생하고, 火生土란 불타버리면 土灰가 되는 것이며, 土生金은 땅물이란 土에서 파고, 金生水는 금속이 液體로 변화하고, 水生木이란 물의 작용으로 식물이 생장함이다. 土는 夏에서 秋로 변할 때이다. 곧 夏火에서 秋金을 생산하는 중간에 있는 媒介이다. 五行은 上古시대부터 내려오는 자연 우주관으로 정신적, 물질적 개념을 '다섯'으로 구성하였다.

오행의 분류 소속표는 다음과 같다.

오행 소속 일람표

五行 分類	木(甲乙, 實卯)	火(丙丁, 巳午)	土(戊己, 辰戌丑未)	金(庚辛, 申酉)	水(壬癸, 亥子)
方位	東	南	中央	西	北
季節	春	夏	四季	秋	冬
五色	青	赤	黃	白	黑
五常	仁	禮	信	義	智
五味	酸	苦	甘	辛	鹹
氣候	風溫和	暑熱	溫濕	冷燥	寒
氣象	風	晴	曇	雷	雨
五體	筋	皮	肉	骨	血
五官	目	舌	鼻	口	耳
五臟	肝 膽	心, 小腸	脾 胃	肺, 大腸	腎, 膀胱
五身	頭 頸	肩 心	腹 臨	腰 股	腿 足
感情	喜	樂	怒	怒	哀
五本	魂	神	意	魄	精
五志	憂	喜	思	悲	恐
五動	進	昇	停	退	降
五樣	推	舉	留	引	押
五液	涕	淚	汗	唾	涎
五音	角	徵	宮	商	羽
五聲	呼	歌	笑	呻	哭
五族	父	女	祖	母	子
五教	儒	基	易	仙	佛
五作	伸	炎	滯	沈	流
五悲	柔	氣	軟	固	液
五果	李	杏	棗	桃	栗
五穀	麻	麥	稷	稻	豆
五政	發 散	明 曜	安 靜	勁 瞿	流 動
五畜	大	馬	牛	鷄	豕
五想	仁	愛	厚	肅	淫
五覺	觸 覺	視 覺	臭 覺	痛 覺	聽 覺
五物	草 木	熱 光	山 田	金 石	江 海
五事	貌	視	思	言	聽

IV. 服飾에 나타난 正·間色의 象徵的 意味

1. 五行의 正·間色

음양오행사상에서 다섯가지 순수하게 표현되는 기본색을 정해서 이것을 正色이라 불렀는데 이를 五方正色 또는 五彩라고도 한다. 五正色은 黃色, 赤色, 靑色, 白色, 黑色이다. 그리고 정색과 정색의 혼합으로 생기는 색을 間色이라 부른다. 五行

說에 의한 오색의 相勝·相生의 正·間色을 좀더 상세히 고찰하면 正色은 靑·赤·黃·白·黑의 五色을 말하며 間色은 五正色의 配合 즉 五行 相勝·相生설에 의해 만들어진 색으로 碧, 綠, 驄, 紫, 紅의 五色을 말하며 方位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배당한다. 靑(東方正色屬木) 赤(南方正色屬火) 黃(中央正色屬土) 白(西方正色屬金) 黑(北方正色屬水)

五行의 相勝說에 의한 間色을 살펴보면 「禮疏」에서 다음과 같이 배속한 바 있다. “金은 白色이며, 金은 木을 이기고, 木은 青色이니 青白間色은 碧色이다. 木은 土를 이기고 土는 黃色이니, 青黃間色은 綠色이다. 土는 水를 이기고 水는 黑色이니 黃黑間色은 驄色이다. 水는 火를 이기고 火는 赤色이니 赤黑間色은 紫色이다. 火는 金을 이기고 赤白間色은 紅色이다.”라고 하였다. 「禮疏」에 의하면 五行相勝說에 의한 間色은 碧, 綠, 驄, 紫, 紅의 五色이라고 한다.

『周禮』考工記에 이르기를 皇帝가 文章으로 써 貴賤 衣服之類를 표시하니, 푸른 것(青)과 붉은 것(赤)은 文이라 하고, 붉은 것(赤)과 흰 것(白)은 章이라고 하고, 흰 것(白)과 검은 것(黑)은 輛라 하고, 검은 것(黑)과 푸른 것(青)은 軺이라 하고, 五彩가 갖은 것은 繡라 하니 그런즉 文章은 의복류가 아니라 옷빛을 말함이다.

대개 文은 東南에 속하고, 章은 西南에 속하고, 輛는 西北에 속하고, 輛은 東北에 속하고, 軺는 中央에 속하니, 黃은 四方을 겸한 正色이다. 그런고로 間色이 아니나 五彩를 갖추었다.

相生說에 의한 間色을 「星湖集說」에서 살펴보면 “木이 火를 生하는지라 青赤間色이 되는 것은 蔊이라 하고, 火가 土를 生하는지라 黃赤間色이 되는 것은 蔊·穀이라 하고, 土가 金을 生하는지라 白黃間色이 되는 것은 穀·穀이라 하고, 金이 水를 生하는지라 黑白間色이 되는 것은 蔊·穎이라 하고, 水가 木을 生하는지라 靑黑間色이 되는 것을 蔊·穎·穎이라 한다”고 하였다. 즉 五行相生說에 의한 間色은 穀·穎·穎·穀·穎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正·間色은 인간사의 吉凶禍福과 관계를 맺고 전개 되었다. 즉, 青赤, 赤黃, 黃白, 白黑, 黑青 相生은 吉色配合이고, 靑黃, 赤白, 黃黑, 白青, 黑赤 相勝은 凶色配合이다. 이와같이 오행설의 相勝(剋), 相生의 원리에 근거를 둔 色彩배합은 인간의 길흉화복의 방향을 인도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으므로 吉服의 色을 선택하여 착용할 것을 추구하였다. 또한 正·間色을 陰陽으로 구분되어 上衣와 下裳로 적용되기도 하였다.

『禮記』玉藻에 “衣는 靑·赤·黃·白·黑의 다섯 正色을 쓰고 裳은 아래에 있어 陰이기 때문에 間色을 쓴다.”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正色, 間色은 음양오행사상의 상극, 상생의 원리에 의하여 의복의 색채에 사용되었다. 五色, 五彩가 찬란하다라는 표현은 주로 통치자의 의복에 사용되어 권위를 나타냈으며 신분의 존엄을 표시하는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일반화된 것은 正·間色은 相生·相剋(勝)의 원리에 의하여 길흉화복으로 상징되어 적용되었다고 생각한다. 古代의 服色은 의복 자체만이 아니라 의복의 색채에 철학적 개념과 사상적 의미를 지녔으며, 정신적인 상징이기도 하였다.

1) 黃 色

黃色은 五行에서 土에 속하고 오색의 중심색이다. 광명과 생기를 주는 陽氣이다. 우주의 중심에 해당하므로 오색 중 가장 고귀한 색으로 인식하였다. 황색은 황제를 의미하였으며 가장 존귀함을 상징하였다.

中國에서는 黃色을 “中之色 君之服”이라 하여 唐高祖時에 赭黃袍를 天子의 抱衫으로 하고 一般庶民에게는 赭黃袍를 禁하였으므로 그후 黃色은 天子의 抱衫의 色으로 되었다. 황색은 중국의 황제의 색이라하여 우리나라에는 시대에 따라 황색의 사용을 禁하기도 하였다. 또한 황색은 통치권자를 상징하는 색으로 일반인에게는 금지 되었다.

—太祖 五年 六月에 엄히 男女의 黃色服을 禁하였다.

-太宗六年七月에中外에 黃色服을 엄금한다.

-成宗2年 대소남녀의 의복에 황색을 금한다.

시대에 따라 황색의 사용이 제약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赤 色

赤色은 五行에서 火에 속하고, 南方의 正色으로 陽을 의미하며, 계절로는 여름에 해당된다. 赤은 太陽, 火, 生命, 활동, 건강, 정열, 양기, 희망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赤色계통으로 표현된 색을 보면 紅色, 大紅, 絳, 緋, 繡 등으로 되어 있다. 赤色은 正色이고, 紅色은 赤白色으로 南方의 間色이다. 紅色은 間色으로 격은 낮지만 복색에서 紅色은 赤色과 마찬가지고 고위층의 복색으로 사용되고 吉服의 색으로 선호하였다.

朝鮮時代에 大紅色의 이름이 등장한다. 大紅은 進上하는 御服色으로 男子의 경우 王, 王世子, 堂上官 이상만이 착용할 수 있었고 그 외에는 금하였다. 王服에는 袞龍袍, 絳紗袍에 大紅色을 사용하였다. 赤色은 복식에서는 상류계급을 뜻하는 색이다.

3) 青 色

청색은 봄이란 계절에 적합한 희망, 생명의 표현으로 온난하고 만물이 무성하는 陽氣가 왕성한 색으로 간주된다. 청색은 적색과 함께 나쁜 것을 물리치는 벽사의 색으로도 즐겨 사용되었다.

청색은 우리나라를 뜻하는 東方의 색이라 하여 모두 청색을 승상하도록 한다고 문헌에 나타난 것을 보면 고려 때 太史局에서 아뢰기를, “동방은 木의 위치인 즉 빛깔은 청색을 승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백색이라는 것은 金의 빛깔입니다. 백성들이 복색을 바꾼 후로 많이 흰 모시옷을 걸에 입는데 이것은 木이 金에 제어당하는 상징입니다. 청컨대 백색을 금지하게 하옵소서”하니, 왕이 그 말을 따랐고 조선시대 世宗때 이미 儒生은 青衣에 頭巾을 갖추었다는 기록이 있고 世祖朝에 別

監이 青團領을, 그리고 文·武·士·庶가 아울러 청색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朝官士庶의 옷으로 衿事에는 青色, 平常에는 白色이 일반적이었다. 이와같이 청색을 승상하여 吉服으로 된 것은 음양오행사상이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英祖2年 왕이 下教하기를, 자고로 나라가 있는한 百姓은 衣冠을 갖출 줄 알아야 하고, 내 것을 승상할 줄 알아야 한다. 我國은 東方이니 만큼 青色을 착용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왕을 비롯하여 公卿, 士庶人까지 青色을 착용하도록 하게 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라는 青色인 木인데 백색은 金이라 하여 金剋木하니 國運이 破퇴한다하여 청색을 일반인에게도 허용되었던 색이었다. 청색은 紅色과 함께 사용하는데 이것은 청색의 木과 紅色인 火가 상생작용인 木生火하여 창생을 의미한다. 청색은 음양오행사상에 의해 우리나라의 동방의 상징으로 청색 착용이 선호되어 왔던 것을 알 수 있다.

4) 白 色

백색은 순결, 신성, 청초의 상징이다. 백색, 즉 흰색은 서쪽과 가을에 해당한다. 흰색은 빛을 상징하여 신성하게 여겼다. 우리 민족의 신성과 기질에 부합되어 한 민족의 대표색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三國志』夫餘條에 의하면 “在國衣尚白，白布大袂，袍，袴”하여 백색을 승상하였다.

『隋書』에 “웃 빛깔은 흰 빛을 승상하고 부인의 머리는 머리카락을 땋아 틀어 올리는데 여러가지 비단과 구슬로써 장식한다”하였다.

우리선조는 백의민족이라 할 만큼 백색이 생활복으로 애용되었다. 그러나 白色衣를 服色에서 禁하였던것은 백색은 우리나라 음양오행설을 근거로 하여 풍수지리에 맞지않아 國運과 관계가 되고, 이외에도 백색이 吉服이 아니라 壽服이기 때문이다, 또한 상류층의 사치 풍조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5) 黑 色

흑색은 五行중 水에 속하고 방위로는 북쪽을 가리키고 계절로는 겨울에 속하며 어두운 곳으로 險을 상징하였다. 중국 고대에서 흑색을 玄, 繙라고 표현한다.

恭愍王六年 閏九月에 “司天少監 于必輿이 上書하여 복색을 오행에 맞도록 改革할 것을 禮하였다. 卽 玉龍記에 이르기를, 우리나라가 백두에서 시작하여 지리에 그치니 그 势는 水根本幹之地라 黑으로써 父母를 삼고 青으로써 身을 삼고 있다. 만약 風俗이 土에 順하면 昌하고 土에 逆하면 災殃을 받는다. 風俗이라하는 것은 君臣百姓 衣服冠蓋를 말함이다. 今後 文武百官은 黑衣 青笠으로 하고 僧服은 黑巾大冠으로 하고 女服은 黑羅로 하여 土風에 順應하도록 하자고 말하여 공민왕이 이에 따랐다”고 하는데 玉龍記는 秘記를 말함이요, 水根本幹은 水(北方)根 木(東方)幹을 말함이니 北은 水요, 黑이요, 東은 木이요, 青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치자고 한것이다.

이처럼 국가의 興亡盛衰를 오행설에 의해 해석하고 왕은 국가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하여 상서로운 오행의 힘으로 국가를 경영하려고 하였다..

6) 紫 色

水(黑)는 火(赤)을 勝하며 水와 火가 섞여서 적 흑색으로 北方의 間色 즉 紫色으로 된다. 正色에 비하여 천하게 여겼으나 「太一概念」에 의해 자색은 최고의 색이었으며 王服 혹은 최고위층에서만 착용하였다. 자색은 서양에서도 귀족색의 상징이기도 하였다.

太一이란 天地의 처음, 만물의 근본을 이루고 또는 常無와 常有를 합하여 하나가 된다. 紫色의 개념을 나타내는 太一이 음양에서 나오며 그것은 가장 귀한 天神(天帝) 혹은 天子가 있는 궁전의 색을 나타내기도 한다.

삼국시대의 복제를 문헌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周書」에 의하면 남자 옷은 소매가 넓고 바지통

이 크며 흰 가죽 띠에 누런 가죽신을 신는다. 그 관은 蔊骨이라 하며 자주 비단으로 만들고 금과 은 장식을 한다.

『翰苑』의 기록에 보면 고려기에 이르기를 사람들은 역시 錦이라는 비단을 짜는데 紫 바탕에 무늬를 놓은 것이 제일이고 다음에는 오색금이고 그 다음에는 운포금이 있다.

『唐書』에는, “百濟에서는 王이 큰 소매의 紫色 도포와 푸른 비단 바지를 입고, 烏羅冠에 金花로 장식하며, 흰 가죽띠와 검은 가죽신을 신는다. 官員은 그림 무늬의 붉은 비단으로 옷을 짓고, 銀花로 冠을 장식하였으며, 서민은 붉은 빛이나 紫色 옷을 입지 못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전통 복색에 나타난 자색의 관념은 삼국시대부터 王服색은 주로 紫色이고 이 고귀한 색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

7) 綠 色

綠色은 자연의 색으로 풍요로움, 젊음, 신선함, 평화 등의 상징이다. 음양오행사상에 의하면 靑黃色으로 동방의 間色이다. 녹색 계통은 원삼, 唐衣 등 여성의 복색에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의복에 나타난 색채는 그 목적과 계급, 용도에 따라 적절한 색의 옷을 입도록 하였고, 음양오행설을 바탕으로 전통 습속을 통하여 색채 개념으로 발전해 왔다.

V. 五行說에 의한 十干·十二支의 象徵과 色

十干과 十二支는 음양으로 배정할 수 있다.

天干음양 : 양-甲 丙 戊 庚 王

음-乙 丁 己 辛 癸

地支음양 : 양-子 寅 辰 午 申 戌

음-丑 卯 巳 未酉 亥

이렇게 음·양에 배속한 干支는 독특한 성격을 가진다.

1. 青色(甲·乙·寅·卯)

甲(木)·乙(木)

甲(木)은 봄철에 나무가 껌질이 터지는 것을 뜻 한다. 甲木은 씨앗이 地表를 뚫고 올라온 모습을 상징한 文字이다. 甲木의 方位는 東方이며 色은 青色에 해당한다. 「淵海子平」에 보면 甲이라는 것은 껌질 터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 자신을 감싸고 있는 껌질을 조개어 터뜨리고서야 비로서 탄생되어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乙(木)은 「淵海子平」에 보면 乙이라는 글자는 세상만물이 처음 나와 그 네줄이 뻗어나갈 때 구불어져 길게 펼쳐지지 않은 모양으로 맨 처음 짹이 돌을 때의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乙木의 성질로는 草木과 같으며, 乙木은 甲木과 같이 春에 해당하고 東方이며 青色에 해당한다.

寅(木)·卯(木)

寅(木)은 竹이 發芽하여 地表를 뚫고 올라온 象을 표시한 문자로서 특히 寅字의 象은 태양이 떠 오르는 東方黎明之象을 표시한 문자이다. 寅木은 正月로 立春, 初春이며 陽木, 剛木, 燥木, 색으로는 青色에 해당한다.

卯(木)의 특징은 苗字의 뜻을 함축해 草木이 쑥터오르며 두줄기로 갈라지는 象을 받아드린 文字다. 卯木은 음력 2月로 仲春之氣로 경칩, 陰木, 活木, 生木, 柔木, 楊柳木, 청색에 해당한다.

2. 赤色(丙·丁·巳·午)

丙(火)·丁(火)

丙(火)는 태양의 精을 간직한 만물에게 평등하게 빛을 주는 太旺한 火이다. 丙은 명랑하고 따뜻한 태양을 뜻하며, 만물이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다. 계절은 여름에 해당하며 방위는 남쪽에 속하고 色은 赤色이다.

「滴天髓」에 의하면 丙火가 맹렬하니 서리와 눈

을 무서워 하지 않는다. 이를 풀이해 보면 丙火는 太陽之火, 큰불로 상징된다.

丁(火)은 만물이 성장하는 뜻을 가진다. 丁火는 달, 별, 燈火, 烛火, 柔火, 陰火 인 것이다. 丙火와 같이 적색, 여름, 남쪽에 해당한다.

巳(火)·午(火)

巳(火)는 丙의 이글이글 타오르는 紅炎상태를 상징한다. 음력 4月, 立夏의 初夏로 陽火, 강렬지화, 자외선, 적색등으로 용용한다.

午(火)는 태양의 광선과 같은 형상을 상징한 것이다. 巳火의 열기에 비해 午火는 빛의 파장이라고 본다. 午火는 仲夏 음력 5月, 망종, 正午, 陰火, 生火, 柔火, 活火, 燈燭, 적색, 적외선 등으로 용용하고 있다.

3. 黃色(戊·己·辰·戌·丑·未)

戊(土)·己(土)

戊(土)는 陽土로서 만물의 무한한 성장을 억제와 조화, 만물을 司命하고 만물이 무성하게 성장하는 것을 뜻한다. 戊土는 山, 城垣 등에 속하며 4계절, 황색으로 용용한다.

「淵海子平」에 보면 戊는 만물을 무성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滴天髓」에 의하면 戊土가 固重하니 중앙에 바르게 자리잡아 靜하면 닫혀지고 動하면 열리니 만물을 지배한다.

己(土)는 戊土와 같이 황색이며 중앙에 자리하면서 중성자로 만물을 영장하는 田畠에 해당한다. 己土는 부드러운 흙으로 田園, 田畠(밭·논) 등 곡물을 재배할 수 있는 흙이다.

辰(土)·戌(土)

辰(土)는 음력 3月, 청명으로 春節에서 夏節로 바꾸어지는데 있어서 과도기적인 중간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陽土, 濕土, 黃色, 가색지도로서 만물을 배양할 수 있다.

戌(土)는 무한히 分散한 陽氣를 모아서 통일과 조절, 收藏과 보호로서 陽의 種核을 보존한다. 戌土는 음력 9月 만주로 陽土, 旺土, 剛土, 山, 岸, 제방, 黃色 등으로 응용되고 있다.

丑(土) · 未(土)

丑(土)의 象은 두손으로 생명의 원천이자 종자를 包護하고 紐帶해주는 형상을 상징한다. 丑土는 음력 12月로 凍土, 濕土, 陰土, 黃色에 해당하고 있다.

未(土)는 모든 식물의 성장이 夏節을 지내면 陰六月경에서 부터 한계점이 드러나 성장은 스스로 결실기로 접어든다. 未土는 음력 6月, 小暑, 三伏之氣, 陰土이나 火의 힘을 얻어 燥土에 뜨거운 暑이다. 황색에 해당한다.

4. 白色 (庚 · 辛 · 申 · 酉)

庚(金) · 辛(金)

庚(金)은 가을이 되면 만물이 收縮하기 시작하여 만물을 견고하게 하며 결실케 하는 것이다. 계절로는 가을이요, 색은 백색이다. 「淵海子平」에 보면 庚이라는 글자는 강하고 견고한 모양이어서 만물이 그 결과를 겪을 수 있는 작용을 하는 글자이다.

辛(金)은 만물의 모든 성장과 결실을 완수해서 열매가 떨어지는 고통을 뜻한다. 金, 銀, 珠玉으로 이미 제련한 금이다. 辛金은 가을에 해당하고 백색이요, 서쪽이다.

申(金) · 酉(金)

申(金)은 夏節을 지내면 만물은 성숙기로 접어 들어 스스로 성장을 억제하기 시작한다. 바로 이것은 金氣며, 만물의 성장을 억제하며 영양분을 收縮케 하여 결실을 맺게 하는 작용이다. 申金은 初秋, 음력 7月之氣로 立秋, 陽金, 剛金, 白色 등으로 응용한다.

酉(金)는 가을이 되면 오곡백과가 결실을 맺는

다.酉金은 仲秋 8月之氣로 白露, 陰金, 軟金, 金, 銀, 珠玉, 제련된 금, 결실, 백색, 등으로 응용되고 있다.

5. 黑色 (壬 · 癸 · 子 · 亥)

壬(水) · 癸(水)

壬(水)는 體陰用陽인 까닭에 動中靜하는 氣象을 가지고 있다. 壬水는 陽水, 겨울, 어두운 밤, 검정색이며 크고 멀리 그리고 길게 표현되어 大海, 바다, 강 등으로 나타낸다.

癸(水)는 壬水와 같이 만물의 근원이 된다. 빗물, 泉水, 生水 등에 해당하고 있기에 從流라 한다. 癸水는 壬水와 같은 계절, 방위이며 흑색에 해당한다.

子(水) · 亥(水)

子(水)는 天運이 壬字의 진리를 계승한 一点水氣며 一陽之精에 該當한다. 만물의 始原이요 宇宙創造的 본체인 물과 같다. 子水는 水氣, 음력 11月, 永雪, 寒流, 한냉지수, 음수, 川水, 柔水, 흑색에 해당한다.

亥(水)는 核形象을 뜻한 문자로 씨앗이 收藏된 것을 뜻한다. 亥字는 음력 10月, 立冬, 陽水, 剛水, 湖水, 橫流, 난류, 흑색으로 응용한다.

VI. 五行色의 祈福的 展開

I. 祈福說의 意義

인간은 누구나 어느날 지구상에 태어난다. 태어남을 상징적 기호로써 표현하는데 이때 年 · 月 · 日 · 時의 네 시기를 두자씩 배합하여 상징한다. 이러한 네 시기의 상징부호를 사주라 하고 또는 사주팔자라고 한다. 年 · 月 · 日 · 時의 千支를 取用한 千支八字는 원래 天理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음양오행이 유행하여 쉬지 않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天地 沖和의 氣를 측정하여 先天

運命을 예지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물체는 氣로 이루어져 있고 이 氣는 기상학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의 생활은 다름아닌 氣의 흐름이요, 작용인 것이다. 그러한 고로 어떤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氣의 내용은 곧 그 사람의 운명과 성격과 능력을 말해주는 것이 될 수 있다. 氣의 운행됨에 따라 만물은 발아하고 생장하고 성실되는 것인 바 四季氣候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모든 생물은 기후의 상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질적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2. 祈福說에 의한 服色의 應用

기복설에서 보면 用神이라는 특수한 단어가 있다. 용신이란 사주상 음양과 오행의 조화를 위해서 필요한 氣神을 말한다. 따라서 용신은 日干에게 제일 필요한 것,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陰陽五行의 조화를 위해 가장 소용되는 用神은 나를 위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용신은 우주의 氣神이며 누구에게나 중요하게 필요한 것을 상징적으로 용신으로서 표현하고 있다.

필자가 언급하려는 복색도 이 용신에 해당한다. 용신이 즉 그 사람에게 필요하고 도와주는 吉祥의 회신으로 상징되어 의복색으로 선택되어 福을 주는 의복으로 정신적,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어느 계절에서 출생하였나 하는 것과 내가 태어날 때 木, 火, 土, 金, 水 중 어느 오행을 타고 난느냐에 따라 운명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天干의 陽氣가 地에 降下하고, 地는 이것에 따라 體質을 生하고 質은 반드시 氣를 附從하여 작용하게 된다. 天干地支 모두 木과 火는 暖하고, 金과 水는 寒하다. 東西南北의四方에 配屬에서 東과 南은 陽으로 暖하고 西와 北은 陰으로 寒하다. 따라서 만약 暖燥에 지나치면 雨露가 있어 축여 주는 것을願한다. 또한 寒濕

이 지나치면 태양이 照射함이 좋은 것이다. 이것은 生剋制化의 常法은 아니지만 기후의 調和여부는 능히 運命興衰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人命은 반드시 음양오행을 떠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복색도 인간의 용신에 따라 의복으로 사용하여 복색에 함축되어 있는 吉祥의 기세를 따라 순용하여 인간의 精氣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상의 설명을 종합하여 그 사람에게 필요한 吉祥의 복색을 다음에서例를 보기로 한다.

時	日	月	年
庚	庚	辛	丙
辰	辰	丑	申

金氣가 太強하여 年 丙火가 申에 가리워 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一点 丙火가 태양처럼 중요한 역할을 한다. 庚辰 日柱가 寒氣가 태중한 凍土표月인데다가 丙辛合으로 水化하였고 地氣로는 습한 辰土가 申辰三合하여 水局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더욱 춤고 풍풍 있게 된다. 또한 土金一色이다. 이것으로 볼 때 丙火는 태양의 상징이며 解冬하여 하므로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丙, 丁火와 火를 生하는 甲, 乙木인 것으로 赤色과 青色이 吉祥이다.

VII. 結論

본 논문에서는 복색의 상징적 의미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복색문화의 특징을 정리할 수 있었다.

복식의 색채상징은 인간의 심리와 내적인 표현 즉 자신의 감정, 사상, 미의식 등을 표현한다. 의복의 색은 단순한 감각만이 아니라 상징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색은 복식제도에 중요한 요소가 되어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관을 반영하여 전통 복식문화로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음양오행사상은 우주의 자연적 질서와 조화를 해명한 이론체계이다. 음양의 원리와 오행의 원리는 우주 삼라만상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설명한 理

論으로 인간의 生活세계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교감한다고 할 수 있다. 우주의 생성 변화를 다섯가지 기본법칙으로 분류하여 天地의 氣가 끊임없이 운행하여 우주의 생성 변화를 돋는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오행에는 相生, 相剋의 원리가 있어 우주의 자연의 법칙적 운행은 음양오행의 상생 상극 원리가 내재되어 각각의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복색의 色은 正色(青·赤·黃·白·黑)과 間色의 사용으로 나타났다. 間色은 正色에 대하여 하위의 색이었다. 복색은 특히 통치 목적에 따라 신분계급, 남녀, 연령 등을 구분하기 위하여 각각 달리 적용되었는데 후기 역사로 내려오면서 의복의 색은 단지 색채 감각만이 아니라 그 祈福的 내용이나 상징성을 더욱 중요시하게 되었다.

황색은 天子의 색이라 하여 왕이 입는 복색이었다. 서민에게는 금지된 색이다. 적색은 생명력 있는 陽氣의 색으로 왕, 왕비, 높은 벼슬 신분의 복색으로 사용되었고 벽사의 색으로 귀신과 재액을 물리치는 색이었다. 청색은 만물이 생성하는 무성함을 상징하여 적색과 마찬가지로 양기의 색으로 벽사의 색이기도 하였다. 백색은 옛부터 우리나라 조상들이 애용된 청렴, 결백, 순결 등의 상징적 복색이다. 흑색은 북쪽과 겨울에 해당하며, 기괴하는 색으로 별로 사용하지 않았다. 자색은 간색이지만 太一概念에 의하여 고위층의 복색으로 적용되었고, 녹색도 간색인데 원삼, 당의 등은 여성복에 이용되었다. 음양오행의 相生, 相剋 원리에 따라 적용하여 인간의 장수와 복, 부귀, 벽사를 기원하는 의미로 전승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복색의 祈福的 전개는 음양오행사상을 적용시켜 복을 얻고 화를 피하기 위하여 색을 선택하여 적용하였다. 이는 착용자에게 吉祥의 상징성을 부여하여 복록의 기원을 나타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복색의 상징은 민족, 문화, 풍토, 지역, 시대에 따라 독특한 색채개념으로 색채문화를 형성하면서 발전해 왔으며, 음양오행사상은 우리나라의 생활문화에 영향을 주어 사회규범으로까

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복색은 인간과 깊이 연관되어 우리 전통 복색문화를 형성하면서 발전해 왔다고 본다.

参考文献

- 「舊唐書」, 景仁文化社.
- 「三國志」, 景仁文化社.
- 「隋書」.
- 「新唐書」, 景仁文化社.
- 「星湖僅說」.
- 「渤海子平」.
- 「滴天髓微義」.
- 「正本書傳集註」.
- 「周書」.
- 「芝峰類說」.
- 「翰苑」.
- 「太宗實錄」, 朝鮮王朝實錄 國史編纂委員會.
- 「太祖實錄」, 朝鮮王朝實錄 國史編纂委員會.
- 「世宗實錄」, 朝鮮王朝實錄 國史編纂委員會.
- 「成宗實錄」, 朝鮮王朝實錄 國史編纂委員會.
- 姜舞鶴, 「韓國人의 뿌리」, 서울 : 新世代社, 1992.
- 具美來, 「韓國人의 象徵世界」, 서울 : 敦保文庫, 1992.
-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전통표준색명 및 색상」, 서울 : 대화인쇄사, 1991.
- 金于齊, 「遺天髓精解」, 서울 : 明文堂, 1981.
- 金用淑, 「朝鮮朝 宮中風俗 研究」, 서울 : 一志社, 1987.
- 劳思光, 「中國哲學史」, 서울 : 探求堂, 1990.
- 蘆台俊, 「周易」, 서울 : 韓國圖書出版中央會, 1991.
- 閔周冕, 「東京雜記」, 서울 : 大洋書籍, 1973.
- 沈載烈, 「渤海子平精解」, 서울 : 明文堂, 1987.
- 양계초, 풍우란, 「음양오행설의 연구」, 김홍경譯, 서울 : 신지서원, 1993.
- 劉明鍾, 「中國思想史(1)」, 서울 : 以文出版社, 1989.
- 柳喜卿, 「韓國服飾史 研究」, 서울 : 梨花女子大

學校出版部, 1975.

- 李能和, 「朝鮮女俗考」, 서울 : 대양서적, 1973.
- 李丙煥, 「三國史記」(下), 서울 : 乙酉文化社, 1983.
- 李順洪, 「韓國傳統婚姻考」, 서울 : 학연문화사, 1992.
- 李如星, 「朝鮮服飾考」, 서울 : 白楊堂,
- 曹圭和, 「服飾美學」, 서울 : 修學社, 1982.
- 崔鳳秀, 「心明哲學(1)」, 서울 : 心學堂, 1991.
- 河龍得, 「韓國의 傳統色과 色彩心理」, 서울 : 明志出版社, 1993.
- 具佳衍, “色 1”, 「우리의 우리문화」, 12, 서울 : 우리문화연구원, 1989.
- 權五虎, “衣裳과 隨陽五行學 2”, 「우리의 우리문화」, 3, 서울 : 우리문화연구원, 1989.
- 朴京子, “한복의 구성면에서 본 삼정성”, 「韓國服飾論攷」, 서울 : 新丘文化社, 1983.
- 李允宰, “白衣 禁制의 史的 溯考”, 「민속의 연구 (Ⅱ)」, 서울 : 정음사, 1985.
- 崔英辰, “易學思想의 哲學的 探究”, 博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89.
- 姜澄清, 「易經與中國藝術精神」, 臺北 : 遼寧教育出版社, 1990.
-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臺北 : 南天書局有限公司, 1977.
- 「滴天髓闡微」, 臺北 : 五洲出版社, 1973.
-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臺北 : 丹青圖書有限公司, 1975.
- 金容勸, 「韓民族の色彩觀」, 東京 : 韓國文化藝術振興院, 1992.
-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攷」(古代編), 東京 : 文化出版局, 1980.
- 千村典生, 「服裝の色彩」, 東京 : 鎌倉書房, 1970.

ABSTRACT

A Study on the Symbolic Meaning of the Costume Colours —Based on the Theory of Yin-yang Wu-hsing(陰陽五行)—

This study has been made to examine the symbolic meaning of our traditional costume colours, based on the theory of Yin-yang (passive-active) Wu-hsing(five-agents), the interaction of yin and yang with the rotation of the five agents wood, fire, earth, metal and waters. Presenting the spirit and the life of our race, the costume culture has been keeping its own systematic symbol.

Being sensible, the colour has to be understood as the colour sense, therefore, the costume colour has begun to have the symbolic meaning with the feeling or the mental value.

According to the theory of yin-yang wu-hsing, the costume colour has presented our racial spirit, way of thinking, and way of life for a long time, and it has become the traditional culture at last.

Based on the doctrine of cosmic harmony, through the motion of yin and yang, or the passive and active elements and their five agents form the material force of everything. The order of nature has its counterpart in five symbolic costume colours wood-blue : fire-red : earth-yellow : metal-white : water-black. The five colours are called the primary colours.

which produce the next compound colours.

Accepted in the social system as well as the social status, the costume colour has set up systematically. The theory of Yin-yang Wu-hsing has given the five colours the symbolic meanings, and its mainstream has been the function of Sangsaeng (compatibility) and Sangeuk(incompatibility), which are generated by the power of virtue. The former is mutually beneficial, while the latter destructive.

The colour as a costume colour has been made distinction between the colour of the upper classes and the colour of the middle and lower classes, and the specific colour has presented the symbolic meanings. The yellow, the red, and the purple have been regarded as

the colour of king, queen, and upper classes.

Being the colour recognition, the costume colour has been established by the society and the race generally. Implied the spiritual elements, the colour recognition could select the lucky colour in accordance with one's destiny. Besides the colour recognition has begun to appear as the racial costumes to protect the society and to pray for good fortune.

According to the theory of Yin-yang Wu-hsing the costume colour has been forming through our long history and has become our costume culture. Therefore the colour of the costume has signified not only the colour sense but also the important symbolic meanings.